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무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지만 결실을 더욱 여물게 하는 자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제5회 KBUF Young Buddhist Camp를 통해, 질어가는 녹음처럼 원력을 다지는 대학생 불자 여러분에게 칭찬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끌려가는 현 시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의 주제인 ‘우리들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하여 스스로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목표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은 매우 유익한 정진의 연속입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나’를 지긋이 들여다보고 다시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향점을 찾아 소소한 것이라도 시작하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끝이지 않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발원으로 시대와 사회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하는 것은, 불교계의 기둥을 이루는 것이자 큰 자랑입니다. 대학생 청년 불자들이 물러남 없이 스스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불교계의 관심과 격려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학생 청년 불자들의 결집의 장인 제5회 KBUF Young Buddhist Camp가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을 내려주시는 혜국스님과 전등사, 보문사를 비롯한 소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경선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의 진력을 치하하며,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거듭 확인하는 대학생 여름 캠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